

도우인시스, 경영혁신 승부사 '옥경석 대표이사' 새 사령탑으로 영입

- ▶ 삼성전자, 한화 출신의 '경영관리 및 재무 전문가' 로 획기적인 경영혁신 달성
- ▶ 세계최고 UTG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플렉시블 글로벌 시장 선도기업으로 도약' 할 것

<2024-09-24>

도우인시스가 "현장형 경영혁신 승부사 옥경석 대표이사" 를 새로운 사령탑으로 맞이했다.

폴더블 UTG(초박형강화유리) 제조 전문기업 도우인시스는 옥경석 전 한화 기계부문 및 한화정밀기계 대표이사를 도우인시스 신임 대표이사로 전격 영입했다고 24 일 공식 밝혔다.

이재규 전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옥경석 신임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품사업에서 오랜 기간 재임하며, 경영관리, 통상, 혁신 등 다양한 직무를 두루 섭렵했고, 한화케미칼 사장으로 한화그룹에 발탁돼 한화 화약부문 대표를 시작으로 화약방산부문 대표 겸 기계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업계에선 옥경석 대표가 삼성전자, 한화 등 대기업 재임시절 원가절감, 영업이익 개선 등 획기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을 들어 "현장형 경영혁신 승부사" 로 평가하고 있다.

도우인시스 관계자는 "당사는 폴더블 UTG 초격차 기술로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다" 며 "금번 옥경석 신임대표는 첨단 IT산업 생태계 이해는 물론 삼성과 한화 등 대기업에서의 강도높은 업무주도로 놀라운 성과를 이끈 인물로 도우인시스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 적임자" 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0년 설립된 도우인시스는 K-디스플레이 핵심 소재기업이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2024년 소부장 으뜸기업이다. 주력제품은 UTG(Ultra Thin Glass; 초박형 강화유리, 이하 UTG) 및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커버 윈도우로 2019년 UTG를 국산화했고, 2020년 세계최초 종이처럼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용 UTG 상용화와 대규모 양산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폴더블 UTG 고도화로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시장수요에 맞춘 새로운 폼팩터 대응 기술 확보로 미래형 플렉시블 UTG 글로벌 원톱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우인시스의 모회사 뉴파워프라즈마 양재영 대표이사는 "금번 옥경석 대표이사 취임을 시작으로 도우인시스는 2025년 코스닥 상장, 플렉시블 글로벌 원톱을 목표로 성장을 가속화할 것" 이라며 "UTG기반의 폴더블 시장선도에 이어 미래형 디스플레이 신 시장 진출로 지속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고 말했다. (끝)

<참고자료>

1. 도우인시스 옥경석 대표이사 사진



2. 도우인시스 옥경석 대표이사 주요 프로필 (공식 프로필 점검)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4)

홍익대학교 대학원 세무학 석사 (2008)

<경력사항>

삼성전자 디바이스 총괄 메모리지원 팀장(2002)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경영지원실 팀장(2004)

삼성전자 반도체 지원팀장, DS 사업총괄 LCD 사업부 지원팀장(2010)

삼성전자 DS 경영실장 부사장(2011)

한화케미칼 폴리실리콘 사업부 사장(2016)

한화그룹 화약부문 대표(2017)

한화그룹 화약방산부문 대표이사(2018)

한화그룹 화약방산부문 겸 기계부문 대표이사 사장(2019)

한화그룹 기계부문 대표 겸 한화정밀기계 대표이사(2020)